

박씨 두산 재벌 살리려 애먼 계열사 매각·구조조정

두산인프라코어 금속·연합노조 공동투쟁... “졸속·분리·일방 매각 반대, 박씨 일가 경영 손 떼야”

금속노조와 두산인프라코어 네 개 연합노조가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졸속·일방 매각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노조들은 두산그룹 박정원·박지원 일가가 부실경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사태를 초래하고 책임은커녕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분리·일방 매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포함)와 기업노조인 두산인프라코어전사노동조합, 두산인프라코어노동조합(안산), 두산인프라코어군산노동조합은 연합노조 형태로 임단투와 졸속 매각 반대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와 네 개 연합노조는 8월 20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부실 경영 책임자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노조는 두산그룹 박씨 일가는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노조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박정원 회장은 언론에 채권단에게 자금을 상환하고 그룹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두산그룹을 받쳐온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모트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를 위한 매각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노동자가 과

연 매각에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MBK파트너스 같은 투자자본에 방위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모트를을 매각한다면 심각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매각 대상이 된 두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두산, 경영실패 위기마다 해고, 계열사 매각”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두산 자본의 졸속 매각에 맞서 금속노조와 기업노조의 공동투쟁만이 충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대선 지부장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천에서 손꼽을만한 기업이다.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인프라코어와 연결돼 있다. 이런 기업을 투자자본에 매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기석 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장은 투쟁

사를 통해 박씨 일가의 부실 경영을 비판했다. 진기석 지회장은 “두산이 2005년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건설기계, 엔진, 산업차량, 공작기계, 방위산업 등 다섯 개 사업부가 있었지만, 엔진과 건설기계만 남았다. 2007년에 5조 원에 달하는 미국 밥캣을 빚까지 내 인수하고 사업부 세 개를 팔아치웠다”라고 지적했다.

진기석 지회장은 “두산그룹은 부실 경영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임금동결과 강제퇴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번 위기에도 노동자 생존권은 인중에 없이 계열사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건설기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에 홉플러스를 인수했지만, 현재 유동성을 확보한다며 지역 거점 매장을 폐점을 전제로 매각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2005년 대우종합기계를 시가 총액 8,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1조 9천억 원에 인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 빚을 내 미국 밥캣을 5조 원에 인수하면서 방위산업사업부와 산업 차량 사업부, 공작기계사업부를 분리 매각해 2조 800억 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두산 자본은 계속해서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동결과 강제 퇴직을 밀어붙였다. 2015년에 희망퇴직 명목으로 2,0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두산 그룹 박씨 일가는 해마다 배당금과 급여로 수백억 원을 챙겨가고 있다.

“노동자가 자주통일 · 평등 세상 만들 수 있다”

8.15 노동자대회, 경찰·서울시 원천봉쇄...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촉구

민주노총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8월 15일 서울 보신각 앞 등 종각역 네거리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를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북, 경남, 경주, 울산지부 등이 이날 투쟁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8.15 노동자대회 개최 장소였던 안국역 네거리에서 종각 네거리로 변경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했다. 8.15 민족자주대회도 장소를 바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표자 중심으로 열었다.

서울시는 8월 13일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8월 15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이날 안국역 일대를 봉쇄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급히 장소와 형식을 변경해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예년과 다르게 전국 집중대회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서울시,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회 인원을 2천여 명으로 축소하고 안전거리 확보, 의자 준비 등 실무



작업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과 협의한 실무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당황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환호는 탄식으로 바뀌고, 노동자와 민중은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하 비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법안 발의 운동으로 2020년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겠다.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은 한국 사회가 민주노총에 부여한 사회적 역할이다”라고 선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남측실천위원회 상임의장은 연대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국방백서를 통해 5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무기가 안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창복 상임의장은 “평화는 8천만 우리 민족이 의지를 모아 노력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변희영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장(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교류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변희영 중앙통선대장은 “노동자만이 자주통일과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현장에 돌아가서 끊임없이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8.15 노동자대회 민족자주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워킹 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합의 이행, 노동자가 앞장서 자주통일”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